

尹-김건희 3개 특검 '공조수사'...조태용·이종호 압수물 공유

해병특검 '중복 방지'...조태용은 내란·'측근' 이종호는 김건희특검 '尹 법률비서관' 주진우 의원尹 '800-7070' 통화... "경위 확인 필요"

채상병 사건 수사방해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순직해병특검팀이 최근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 이종호 전 블랙핀인베스트 대표 관련 압수물을 다른 특검과 공유해 수사하기로 했다.

내란특검, 김건희특검, 순직해병특검 등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를 대상으로 하는 3대 특검 동시 기동으로 제기된 중복수사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차원이다.

정민영 특검보는 22일 서울 서초동 특검사무실에서 연 브리핑에서 "현재 총 3개 특검이 활동하고 있고 수사 대상이 일부 중복된다"며 "어느 한 특검에서 확보한 압수물을 다른 특검에서도 살펴봐야 하기에 협의를 해왔다"고 밝혔다.

이어 "저희가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압수물 일부에 대해 다른 특검이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았다"며 "조태용 전 국정원장 관련 압수물에 대해선 내란특검이, 이종호 전 대표 관련 압수물에 대해서는 김건희특검이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은 것으로 파악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법원이 발부한 영장을 확인하고 집행에 협조할 예정"이라며 "구체적인 집행 방법과 시점에 대해선 집행이 마무리되면 추후에 밝히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순직해병특검은 지난 10일 김건희 여사 측근으로 알려진 이종호 전 블랙핀인베스트 대표 자택을, 11일에는 조태용 전 국정원장 자택을 각각 압수수색해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이후 내란특검은 지난 16일 조 전 원장을, 김건희특검은 지난 19일 이 전 대표를 각각 압수수색했지만 이미 순직해병특검이 압수수색을 진행한

터라 확보한 압수물이 중복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압수물에 대한 특검 간 수사 협조가 불가피했는데, 임의로 압수물을 공유할 경우 적법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각 특검이 순직해병특검의 압수물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는 형식으로 압수물을 공유하기로 협의한 것이다.

조태용 전 원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채상병 사건 조동수사 결과 보고를 받고 격노했다는 2023년 7월 31일 회의에 동석한 인물로, 이후 사건 이첩보류 및 혐의자 변경 등 수사외압에 관여한 정황으로 순직해병특검 수사를 받고 있다.

동시에 조 전 원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 등의 비화본 정보가 계입 이후 원격으로 삭제되는 상황에 관여한 정황이 포착돼 내란특검에서도 수사를 받는 상황이다.

이종호 전 대표는 채상병의 부대장이었던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에서 제외하기 위해 친분이 있던 김건희 여사에 정탁했다는 의혹으로 순직해병특검 수사를 받는다.

이 전 대표는 김 여사가 연루된 도이치모터스·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의 핵심 인물로 지목돼 김건희특검의 주요 수사 대상이기도 하다.

한편, 순직해병특검은 'VIP 격노설' 당일인 2023년 7월 31일 발신자가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 알려진 '800-7070' 번호로 통화한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에 대해서도 조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검사 출신인 주 의원은 당시 윤 전 대통령을 보좌해 대통령비서실 법률비서관으로 근무 중이었다. /연합뉴스



혁신당 "내란 피의자 엄정 수사를" 조국혁신당 서왕진 원내대표(왼쪽 두번째)가 22일 내란 특검 사무실이 있는 서울고등검찰청에서 엄정수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기재·통상 25일 '2+2 담판' 대미 관세 협상 총력

美 재무·USTR대표 협상...외교·산업장관도 이번주 접촉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이 오는 25일 미국 워싱턴DC에서 '2+2 통상협'에 나선다. 관세협상 마감시한(8월 1일)을 앞두고 최종 담판 성격이다.

조현 외교부 장관,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도 조만간 미국을 찾아 각각 카운터파트를 설득할 예정이다.

대통령실의 위성락 국가안보실장, 초당적인 한미의원연맹 방문단은 이미 미국에 머물고 있다.

2+2 협체를 중심으로, 대미 통상외교에 국력을 집중하는 모양새다.

구윤철 부총리는 22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재명 정부 초대 경제·외교 장관들과 첫 대외경제장관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을 만나 "긴급하게 대외경제장관회의를 개최해 향후 대미 협상, 관세

협상에 대응할 방향의 인식을 공유하고 전략도 논의했다"며 "8월 1일까지 시간이 많이 남아 있지 않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저와 통상교섭본부장이 미국 재무부 장관·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2+2'로 25일 회의를 하는 것으로 확정됐다"고 밝혔다.

이른바 '7월 패키지' 추진에 합의한 지난 4월말 회의 이후로 석달만에 '2+2 협의회'를 재가동하는 것이다.

다만, 종전의 회의체 멤버였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대신해 통상실무를 총괄하는 통상교섭본부장이 나서는 구도여서 주목된다.

구윤철 부총리는 "미국 쪽에서 재무장관과 USTR 대표가 (참석하는 것으로) 요청이 와서 저희도 그렇게 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스콧 베스트 미 재무장관을 제외하면 나머지 3명의 멤버는 모두 바뀐 셈이다.

미국 노딜트 트럼프 행정부로서는 산업통상 전반을 총괄하는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보다는 '관세전쟁'에 첨병으로 나선 제이미스 그리어 USTR 대표를 내세워 더 디테일한 협의를 도출하겠다는 포석으로 보인다.

조현 외교부 장관,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빠르면 이번 주 미국을 찾아 각각 카운터파트인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 러트닉 상무장관을 접촉할 예정이다.

구 부총리는 "모든 관계부처가 원팀으로 국익과 실용 차원에서 계획도 치밀하게 짜고 대응도 총력으로 하기로 했다"며 "마지막 갈 때까지 최선을 다해 총합 전략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8월1일 협상시한의 연장 가능성을 묻자, "가서 협상을 해야 한다, 협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연합뉴스

대선 선거비, 민주 535억·국힘 450억

개혁신당 28억·민노당 10억 지출

제21대 대선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당시 후보가 535억1000여만원,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가 449억9000여만원을 각각 지출한 것으로 집계됐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2일 제21대 대선에서 각 정당·후보자가 지출한 선거 비용이 총 1033억 3000여만원이라고 밝혔다.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는 28억3600만원, 민주노동당 권영국 후보는 9억9000만원을 선거 비용으

로 썼다.

선거비용제한액(589억원) 대비 지출 비율을 보면 이 대통령은 90.9%로 나타났다. 김 후보는 76.5%였으며, 이 후보는 4.8%, 권 후보는 1.7%로 각각 파악됐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대선에서 유효투표 총수의 15% 이상을 득표, 선거 비용을 전액 보전받게 됐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여의도 브리핑

안도걸 '퇴직연금 기금화' 법안 대표 발의

더불어민주당 안도걸(광주 동남을·사진) 국회의원은 22일 퇴직연금제도의 구조적 개혁을 위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재 퇴직연금은 국민 노후를 책임질 '제2의 연금' 입에도 불구하고 낮은 수익률, 저조한 가입률, 일사중도 인출 등의 문제로 본연의 노후보장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

퇴직연금 10년 평균 수익률은 2.31%에 그쳐 물가상승률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상품 구조의 복잡성과 제한된 선택권 때문에 대다수 가입자가 원리금보장형 상품 중심으로 적립해 퇴직연금 자산이 생산적 투자로 이어지지 못하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다.

반면, 2022년부터 30인 이하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도입된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푸른씨앗)'는 공격 기금 방식의 통합 운용으로 지난 3년간 누적 수익률 20%를 돌파했다. 지난해에는



6.52%, 올해 상반기 7.46% 등 우수한 성과를 보여 기금형 제도의 필요성과 효과가 충분히 입증됐다.

이에 따라 이번 개정안은 효과가 입증된 '기금형' 모델을 전체 사업장과 근로자 대상 퇴직연금에 적용하는

것이 핵심이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퇴직연금 제도는 다음과 같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안도걸 의원은 "퇴직연금 개혁은 국민의 노후 빈곤을 풍요로운 삶으로 전환할 수 있는 핵심 과제"라며 "통합 기금형 제도를 민간 퇴직연금사업자까지 확대하면, 2034년 1000조 원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는 퇴직연금의 수익률이 크게 높아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필 제 240320-중-166683호]

[광고]

무릎 통증이 심할때는 첨단우리병원



무릎 관절

인공관절 수술
관절경 수술
- 전,후방 십자인대 수술
- 연골판 수술

튼튼한 척추 튼튼한 관절
첨단우리병원

대표전화. **970-6000**
첨단과학기술원 / 호수공원 앞

40

1985
2025

대한전문건설협회 전라남도회

전문건설인 대한민국을 세우다!

「대한전문건설협회」 40주년 혁신적인 건설문화를 선도합니다!